

2014년 1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4.1.28(목) 15:00~16:30

■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사회자

- 지금부터 뉴스Y 제2기 시청자위원회 1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Y측과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Y 송현승 대표이사입니다. 유병철 전무이사입니다. 이래운 보도본부장입니다. 조복래 보도국장입니다. 주종국 심의실장입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입니다. 강대인 미디어시민모임 이사장이십니다.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십니다. 김용주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성낙용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국장이십니다. 양승찬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입니다.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이십니다. 이용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이십니다. 최진영 법무법인(유)로고스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오늘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신 이현규 위원께서는 모친상으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 전체 위원

- 박수

△ 사회자

- 다음은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여는 뉴스Y 송현승 사장께서 하시겠습니다.

△ 송현승 사장

- 강대인. 귀하를 보도채널 뉴스Y 제2기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회의실 양쪽테이블 중앙에서 호명하여 위원 9인 전원에게 위촉장 수여)
- 각계 각층의 전문가분들을 뉴스Y 시청자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뉴스Y 보도에 대해 크고 작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주시고 조언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보도전문채널로 그 위상을 다질 것이오니 앞으로도 뉴스Y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 전체 위원

- 박수

△ 사회자

- 다음으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으며 추천된 후보는 모든 위원님들의 거수와 함께 구두로 동의 의사표시를 거쳐 선

임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낙용 위원

- 신문방송학계에서 활동하시고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국방송학회, EBS 등 시청자위원을 역임하신 강대인 미디어시민모임 이사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전체 위원

- 제청합니다. 찬성합니다.(거수, 박수)

△ 사회자

- 본인 및 위원님들 모두 거수와 함께 구두로 동의하셨습니다. 강대인 미디어시민모임 이사장께서 뉴스Y 제2기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대인 위원장

- KBS 시청자위원 부위원장, 통신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연화 회장님을 모시면 경험을 바탕으로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잘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시청자위원회의 홍일점이시기도한 김연화 회장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같은 생각이시면 동의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위원

- 찬성합니다.(거수, 박수)

△ 사회자

- 모든 위원님들께서 거수와 함께 구두로 동의하셨고 박수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대인 이사장께서 위원장으로, 김연화 회장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박수).

▲ 김연화 부위원장

- 제가 나이순으로 두 번째라서 하신 것 같은데요 또 유일하게 여성이라서 또 분위기 메이커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도와서 공정한 방송을 위한 시청자위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강대인 위원장

- 제가 위원장으로 추대가 되었으니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이신 이용우 선생께서 지금 도착하셨으니까 박수로 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 강대인 위원장

- 제가한 13년 정도 방송국 PD등으로 일한 경험이 있고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에서 선생을 했습니다. 평생 방송과 함께 해왔고 방송정책에도 관여해왔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추천하는 단체는 어떤 것이고 하는 비교적

역사적 배경부터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한두 곳의 타방송사에서 시청자위원장을 맡아본 경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도전문채널 뉴스Y와 같은 특별한 방송에서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 뉴스Y의 채널 번호가 모두 통일이 되어있습니까 23번이 아닌 다른 번호로도 나가고 있습니까?

△ 회사 측

- 스카이라이프는 100%이고 아날로그는 70%가 넘고 디지털은 90%가 넘습니다.

▲ 강대인 위원장

- 23번이 아닌 다른 번호로 나가는 경우가 플랫폼 사업자의 채널편선에 따라 다를 순 있겠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조직원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23번으로 통일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 회사 측

-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강대인 위원장

- 보도채널 23번의 채널번호가 곧 통일될 것이고 모두 관심을 갖고 매번 회의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방송프로그램 전반에 반영되어지리라 기대합니다.
- 저도 자주 시청을 하면서 여러가지 느끼는 바도 있지만 꼼꼼하게 시청해서 무엇이 잘되고 잘못됐는지 어떤 것이 아쉬운 점인지 구별해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더욱 가져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방송의 편성방향과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첫 회의일이니 만큼 다음번 회의 때에 1~2월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방송국의 시설과 내부 운영시스템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회의를 가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음번 회의는 2월 마지막 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위원님들 27일인 목요일이 어떠신지요? 시간은 오후3시가 어떠실지 위원님들 모두 괜찮으신지요?

▲ 전체 위원

- 괜찮습니다(전 위원 동의)

▲ 강대인 위원장

- 그러면 2월 회의는 27일 목요일 오후3시로 정하고 송현승 사장님과의 오찬행사는 다음에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Y 1월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전체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박수)